

2026. 4. 20.(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4월 20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02-2133-795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6쪽

상임기획정책팀장

인성분

02-2133-7952

서울시, 위원회 심의 전 과정 디지털화..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으로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 안건 상정부터 의결·공개까지...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심의 전 과정 원스톱처리
- '사전검토 절차' 정착...신속한 심의와 주택공급 추진 기반 강화
- S-map 기반 3D 시뮬레이션으로 의사결정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 국가지정 문화재 '태평홀'...보존을 넘어 '스마트 심의 전용 공간'으로 활용

☐ 서울시는 도시·건축·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주택공급 등 시 정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2020년부터 본격 도입한 통합관리시스템은 안건 상정부터 검토, 심의, 의결, 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자료 관리부터 위원회 운영 절차 전 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일관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사전 검토 절차를 의무화하여 안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주요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 그동안 위원회 심의는 인쇄자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사전검토 절차가 부족해서, 회의 준비 및 심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였다.

○ 회의 당일까지 자료 수정 및 준비가 이어지고, 심의위원이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한 자료 및 답변이 부족해서 반복적인 설명과 장시간 논의가 발생했다.

○ 이에 따라 심의가 지연되거나 보류가 발생하는 등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주요 정책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다.

□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시작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 첫 도입 이후 2020년 도시재정비위원회와 건축위원회, 2022년 신속통합기획자문단, 2023년 교통영향평가위원회, 2024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2025년 공공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위원회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했다.

○ 현재 총 10개 위원회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위원회 운영 전 과정을 통합하고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운영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 운영부서, 상정부서, 심의위원 등 참여 주체가 동일한 시스템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안건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을 함께 관리함에 따라 불필요한 반복 업무가 사라지고, 행정 프로세스가 비약적으로 개선됐다.

□ 서울시는 시스템 도입과 함께 사전검토 중심의 심의 절차를 구축해 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회의는 설명 중심에서 벗어나 주요

쟁점 위주로 운영되며, 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 심의위원은 회의 개최 전 시스템에 접속해 안전을 사전 검토하고 의견을 등록하며, 상정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사전에 마련한다.
- 심의 과정에서 ‘사전검토에 대한 조치계획’ 위주로 논의되면서, 미흡한 답변 및 자료 부족에 따라 심의가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비율은 현저히 감소했다.

□ 통합관리시스템에는 계획 수립 및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아카이브는 ▲위원회 운영기준 및 매뉴얼 ▲지침 및 세부기준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 5가지 분야의 정보를 담고 있다.
- 공무원, 전문업체, 심의위원 등 관계자들이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동시에 심의 전문성과 사업계획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 아울러 디지털 트윈 기술인 S-map 기반의 3D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사업계획을 입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

□ 이러한 성과로 인해, 인천광역시·용인시·화성시는 위원회 통합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구축·운영 중이며,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 최근에는 경기도 고양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방문 등 도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또한, 서울시는 본 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전국 표준 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심의 지원뿐만 아니라, 시청 본관에 위치한 국가지정 문화재인 ‘태평홀’을 위원회 전용 심의공간으로 활용해 정책 결정의 상징성을 더했다.

○ 태평홀은 1926년 경성부 청사 회의공간으로 조성된 이후 서울시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공간이며, 문화재로서의 가치 또한 지니고 있다.

○ 올해 2월 6일부터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실질적 심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면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한 7개 위원회가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심의 환경을 지원하게 되었다.

□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주택공급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과 전용 심의공간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책임 있는 판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서울형 위원회 운영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선도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첨부1_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Urban and Architecture Commission

[위원회 소개](#)
[위원회 계획일정·결과](#)
[위원회 아카이브](#)
[로그인](#)

전체

도시공간본부

주택실

교통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건축위원회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신속통합기획자문단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위원회 운영기준 및 매뉴얼

도시계획상임기획과
202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매뉴얼 - 심의기준 1권
2026-01-01

도시계획상임기획과
202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매뉴얼 - 심의기준 2권
2026-01-01

기본계획

도시계획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22)
2022-12-31

도시관리과
2030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관리 기본계획(2020)
2020-06-01

단행본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서울의 도시공간계획 (2024)
2024-01-01

도시계획과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2021)
2020-12-31

신속통합기획 가이드

지침 및 세부기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공공주택과) 22-06-30

용적을 완화 중첩적용 - 기반시설 충족(도시관리과) 22-06-30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적 결정 기준(시설계획과) 22-06-30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도시공간전략과) 22-06-30

재정비촉진지구 신속통합기획 자문(재정비촉진과) 22-06-30

역세권 재건축 용적을 특례 적용기준(공공주택과) 22-06-30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개선 방안(건축기획과) 22-06-30

「제2·3종일반주거지역 용적을 완(도시계획과) 22-06-30

<첨부2_태평홀>

